

광양 김 시식지서 '창작 김 음식축제'

17~18일·24~25일 나흘간 개최
1일 30명 선착순 참가자 모집
광양김 사진 전시·난타 공연도



광양 김시식지에서 17~18일과 24~25일 대한민국 창작 김 음식 축제가 펼쳐진다. 전남도 기념물 제 113호 광양 김 시식지.

광양시는 17~18일과 24~25일 광양 김 시식지에서 '대한민국 창작 김 음식 축제'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창작 김 음식 축제는 '맛있는 김 음식 함께 만들기'를 주제로 2022년도 문화재청 생생문화제 '광양 生生 김 여행' 사업의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축제는 1일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17일 다문화 이주민 여성이 내 고국(고향)에 만들어서 보내고 싶은 김 음식 만들기, 18일 내가 만들어서 자랑하고 싶은 김 음식 만들기, 24일 초등학생들이 엄마·아빠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김밥 만들기, 25일 청소년이 내가 만들어서 동생에게 주고 싶은 김밥 만들기 등 일정으로 열린다.

참가자들이 요리연구가의 다양한 창작 김 음식 만들기 강의를 듣고 난 후 개성이 넘치는 창작 김 음식을 만들어 제출하면 김 음식 10년 이상 경력의 요리연구가 심사위원이 심사해 상위 7명에게 광양지역 기관·단체장 표창을 수여한다.

김 음식 만들기뿐만 아니라 광양김 옛 추억 사진 전시, 광양김 지역 문화유산 설명, 난타, 장구, 한국무용 공연, 스토리텔링 광양김 콘서트 등 다채

로운 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시는 지난 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호남요리제과직업전문학교의 김 음식 전문 컨설팅을 통해 참가자가 김 음식을 쉽게 배우고 만들도록 할 예정이다.

김미란 광양시 문화예술과장은 "대한민국 창작 김 음식 축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오감이 만족하는 힐링의 시간이자 광양 김 시식지에 내재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역사를 바르게 알리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창작 김 음식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 보는 음식 축제를 마련했다"며 "시민과 관광객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란 광양시 문화예술과장은 "대한민국 창작 김 음식 축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오감이 만족하는 힐링의 시간이자 광양 김 시식지에 내재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함께 즐기고 힘 모으자

20~21일 구례군민의날 행사

구례군이 20일부터 21일까지 구례공설운동장과 서시천체육공원에서 '제41회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첫째날 20일은 군민의 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전 군민이 함께하는 군민 노래자랑이 서시천체육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지난 4일에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들의 뜨거운 경연이 펼쳐지고, 조정 가수 박서진, 이정옥 등이 출연해 흥겨운 시간을 연출한다.

둘째 날인 21일은 구례공설운동장에서 군민의 날 행사가 열린다.

각 읍·면별 특색 있는 입장식을 시작으로, 각 읍면 대표 선수들이 단합하여 줄다리기, 400m 계주, 족구, 축구, 게이트볼, 씨름, 단체줄넘기, 한궁 등 체육 경기가 펼쳐진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최근 열린 군민의 날 행사 추진 상황 보고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개최하지 못하다가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 만큼 성공적인 행사 추진과 더불어 안전관리와 의료지원 등 철저한 준비로 최대한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은 "축제를 통해 구례군민의 발전 역량을 모으고,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힘을 합치는 '군민의 날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군, '친환경 약제 칩덩굴 제거' 시범 도입

산림근로자 대상 시연회 진행

보성군이 최근 득량면 오봉산 일원에서 산림청에서 인정한 친환경 약제를 활용한 칩덩굴 제거 기술 습득을 위해 '친환경 약제 방제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2022년 칩덩굴 제거작업을 담당 및 시공하는 공무원, 시공(감리)업체 대표 및 현장대리인, 산림 분야 근로자 등 74명이 참여했다.

보성군은 지금까지 줄기를 제거하고 뿌리 주변의 흙을 파낸 후 주두부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칩덩

굴 제거작업을 시행해 왔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높이기 위해 올해 가을부터는 친환경 약제 방제작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약제 생산 및 납품업체 책임 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약품에 대한 설명과 살포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약제 희석, 현장 살포 및 제거작업 등을 교육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인정한 친환경 약제를 활용한 칩덩굴 제거작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후 내년부터 추가로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실시

10월부터...내년 전면 시행

여수시가 오는 10월부터 일부 읍면동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여수시 모든 부서에서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점심시간 휴무제는 순천시와 광양시 등 전남도 13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공공서가 늘고 있다.

여수시는 9월 집중 홍보를 거쳐 10월부터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양동, 동문동, 중앙동, 광림동, 국동, 여서동, 미평동, 쌍봉동, 여천동, 주삼동, 모도동 등 14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한다.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11월에는 전체 읍면동에, 내년 1월부터는 시청 전 부서에서 시행하게 된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과 함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기존 28대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10대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무인 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부터 추가 설치된다.

근무 시간 중 민원 업무를 보기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분청 민원지적과에서 '화요 야간 행복민원실'을 운영한다.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한 만큼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점심시간 휴무제는 더욱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시행 초기 다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경찰 실종 노인 수색 도움 이장에 감사장

고흥경찰은 지난 14일 실종신고된 마을 노인 수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서면 마을 이장 정흥배(사진 가운데)씨에게 감사장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8월 28일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A씨 집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할아버지가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을 안내하는 등 수색에 적극 협조해 실종 7시간만에 마을 뒷산에서 A씨를 발견했다.

장승명 고흥경찰서장은 "우리지역 특성상 고령 인구가 많아 미귀가 실종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 평소 자주 다니는 동선이나 행동특성, 목격자의 진술이 수색구역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농번기철을 감안해 대서파출소를 방문해 감사장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흥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조해 치매노인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스마트워치 지급하는 등 실종사건 예방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흥=추자중 기자 gju@

곡성군 연말까지 '모바일 스탬프 투어'

10개 코스 완료 뎀 기념품 제공

곡성지역 숨은 명소를 둘러보고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곡성군은 연말까지 곡성지역 10개의 코스를 여행하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탬프 투어는 지역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섬진강 침실습지' '합허정과 제월섬' '대황강드라이브 코스'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 '가정역과 압록상상스쿨' '도림사와 오토캠핑장' '곡성 트롤리버스(2개 코스)'로 구성됐다.

또 곡성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성륜사와 아산조방원미술관' '태안사와 조태일시문학관 코스'도 마련됐다.

관광객은 '곡성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에 접속해 원하는 여행 코스를 선택하면 된다. 관광객이 여행지를 방문하면 자동 인식되며 1·3·5·7·10개 코스를 완료할 경우 기념품이 제공된다. 곡성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에는 관광지에 대한 소개, 도보·차량 길 안내, 여행 후기 등이 수록돼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통해 지역의 숨은 명소가 전국에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